

David deSilva 박사 , 신약의 문화 세계

, 세션 1, 서론: 명예와

수치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신약성서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 세션 1 , 서문: 명예와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David deSilva 입니다 . 나는 1995년부터 오하이오주 애쉬랜드에 있는 애쉬랜드 신학교에서 신약과 그리스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는 플로리다 연회에서 연합감리교회 장로로 안수받았으며 학계에서 내가 하는 일을 주로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일로 여긴다. 교회. 나는 오래전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하면서 신약성경의 문화적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특정 신약성경 본문을 읽는 측면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경우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텍스트를 읽을 때 문화를 주요 맥락이나 환경으로 주의 깊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접하고 21세기,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서 자라면서 우리 사고방식의 일부이자 핵심이 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행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서기 1세기 지중해 동부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한 문화적 가치, 가정, 행동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명예와 수치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21세기 플로리다에서 나만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 합법성,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룹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가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실천에 반영될지 말지. 그렇다면 우리 동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가치있게 여기거나 존경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면이나 가치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상품에 접근하는 방식은 관계형이 아닌 주로 상업적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필요할 때 나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상품에 대한 현금이나 신용입니다. 상품이나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 관계적 접근 방식이 아닌 반면, 1세기 지중해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나는 가족에 대해 1세기 소아시아, 유대, 이집트 거주자가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에게서 핵가족이 있습니다. 대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대인들이 가족을 생각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 내용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결과 오염과 같은 가치는 1세기 갈릴리나 유대를 돌아다니는 예수의 경우와는 달리 21세기 서구 세계의 우리에게 매우 다른 반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오염은 주로 환경 문제입니다. 또는 더럽힘이나 정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종교의 영역이 아닌 일종의 위생이나 미생물의 영역으로 옮겨져 신과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행은 우리가 20세기를 거쳐 대륙을 건너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행에는 고유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만의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고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우리의 문화적 논리나 문화적 전제를 그 텍스트에 강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텍스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외국 문화 논리와 외국 사회적 전제를 지닌 매우 외국 문화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텍스트를 잘못 읽을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텍스트가 신성한 성경의 권위를 가질 때 이것이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은 우리 문화의 전제를 텍스트로 읽고 이제 신성한 권위가 부여된 텍스트에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전제에 도전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점에서 상당히 반문화적으로 살기 시작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기독교 신학과 제자도에 매우 중요한 예는 단순히 은혜라는 값없는 선물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위치로 인해 우리는 이 문구를 그러한 호의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 썼을 때 그런 용어를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의 의미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이해와 제자도,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이에 큰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은혜라는 값없는 선물은 주는 것이 거저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부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강요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쓴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까? 주는 것은 자유롭고 강요되지 않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관행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의 말을 들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약성서를 읽는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1세기 지중해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매트릭스에 몰입하여 본문에서 고대의 청중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자가 청중이 우리 자신의 것을 가정하고 제공하는 대신에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논증적 연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작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문화적 매트릭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또한 고대 청중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직면한 도전과 신약성서 저자들이 청중을 새로운 독특한 문화로 형성하기 위해 청중에게 제시하는 도전을 더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관행에 대한 관심은 신약성경 저자들의 도전을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개회 강연에서 나는 고대 세계, 특히 신약성서에 나오는 1세기 지중해 환경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명예는 지중해 세계 주민들의 주요 가치입니다. 광범위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현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1세기 지중해 사람들이 명예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이 특별한 일반화는 적어도 그 방향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증거에 기초하여 상당히 정당해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동부를 거쳐 북아프리카까지.

예를 들어, 우리는 1세기 로마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네로가 성년이 되면서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엘리트 작가 세네카(Seneca)가 쓴 *On Benefits*라는 논문을 읽습니다. 그것으로 세네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네카는 우리가 다른 점의 증거로 나아가는 하나의 확고한 확신은 이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명예로운 것은 명예롭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네카는 1세기에 대해 메타 수준에서 자신의 세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명예의 가치를 기본 가치로 식별합니다. 어떤 것이 명예롭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바람직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 불명예스럽거나 불명예로 이어질 경우, 그것은 세네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고려, 명예를 얻는 방법, 명예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명예를 잃게 만드는 원인, 명예에 대한 고려가 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명예로운 것에 대한 고려에서 다른 점의 증명으로 나아간다고 썼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론의 최종선은 그가 관찰한 대로 어떤 것이 명예로운지 불명예스러운지 여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들도 명예로운 것과 함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갈등이 명백해진다면 이러한 가치가 명예로운 것보다 우선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사람들이 내리기를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고대 세계의 많은 문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법과 설득력 있는 연설에 관한 고대 또는 고전 핸드북입니다. 이 핸드북에서 우리는 항상 언급되는 명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이끄는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해 읽습니다.

명예로운 것과 함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학 광고 기원전 50년경 설득에 관한 라틴어 책인 헤레니움(Herenium)에서는 의사 결정의 두 가지 원동력이 명예와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저자는 이 두 가치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명예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불명예스럽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청중을 설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윤리에 관한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를 주요 관심사이자 즐거움과 이점으로 식별합니다. 그러나 그도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명예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청중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불명예스러운 길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명예와 수치심을 기본적으로 중추적인 가치로 지적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가치 및 고려 사항과 함께 존재하더라도 상당수의 고대 작가는 이를 의사 결정의 최종 동인으로 식별합니다.

유용한 연습은 잠언이나 다소 나중에 나온 벤 시라의 지혜(Wisdom of Ben Sirah)를 훑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들이 어떤 행동이나 관행을 단지 명예롭다거나 좋다고 말함으로써 얼마나 자주 칭찬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번역되는 단어는 적어도 벤 시라(Ben Sirah)에서는 칼론(kalon) , 고귀한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동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권장됩니까? X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이 저자 중 한 사람은 그것이 학생이 X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한 주장이라고 간주합니다. 이제 명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즉, 명예는 다른 집단에 의해 부여됩니다. 나는 자존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다고 말하고 자신의 그룹 구성원으로서 내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전까지는 명예를 누릴 수 없습니다. 명예와 수치심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모든 집단은 무엇이 명예로운 행동이고 무엇이 명예로운 사람을 만드는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흔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집단의 행복과 생존, 유지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명예 문화에서는 내가 그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통제력을 갖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 내가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이 그들의 눈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성찰에 구한다.

따라서 나는 그룹이 번영하고 생존하기 위해 그룹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마도 그 가치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존심이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이 그러한 가치를 충족한다고 믿을 수 있지만 자신의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확인을 거부당할 수 있는 큰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치심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수치심은 불명예, 불명예, 집단의 반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정체성 유지와 생존에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수치심은 겸손이나 그룹의 승인에 대한 관심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명예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극심한 수치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적인 의미의 수치심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1세기 지중해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자질이나 활동을 바탕으로 명예를 얻거나 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우리가 귀속된 명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구성 요소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간 출생 사고입니다. 나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가문은 어떤 지위와 집단적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위와 집단적인 명예를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때때로 어떤 민족 집단은 어떤 명예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 문헌을 읽을 때 다양한 인종 그룹은 종종 명예에 대한 상대적인 주장을 놓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내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행하는 행위와 내가 속한 그룹의 가치나 미덕을 반영하는 정도까지 내가 하는 일에 포함될 것입니다. 명예와 명예의 부족, 수치심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읽을 때 우리는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육체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육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좌석 배치는 종종 상대적인 명예에 대한 결정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내 오른쪽에 앉으라는 초대는 일반적으로 명예로운 자리에 앉으라는 초대이며, 따라서 그 모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머리를 대하는 방식과 실제 머리를 대하는 방식은 그룹 측의 명예 결정을 반영합니다. 만일 그 머리가 기름부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특정한 직분, 아마도 제사장이나 왕의 영예가 부여된 것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거나 관을 씌우면 그 사람은 눈에 띄게 공개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의 우승자는 화환을 받게 됩니다. 머리에 화환을 씌우는 행위는 명예를 수여하고 행하는 상징적인 표시이다. 또는 예를 들어 예수를 재판하고 조롱할 때 그 머리를 뺨을 맞는다면 그것은 불명예, 수치, 명예에 대한 도전, 신분 하락 의식의 일부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구들에서 이름이나 평판이 언급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명성, 즉 육체적인 존재 이상으로 누리는 명예입니다. 그러나 이름 자체는 일종의 환유가 되고,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나 형상이 됩니다.

이름이 비방됩니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명예가 세상에서 구두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코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예가 하늘 영역에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서도 점점 더 널리 인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성별에 관해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세기 세계에서,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지중해 문화와 섬족 문화와 중동 문화에서 실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명예는 남성의 명예와는 아주 다르게 생각됩니다. 남자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대 문헌에서 우리는 여성이 명예를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실제로는 실내에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집 안의 사적인 공간이거나 집 밖이라면 여성이 자주 드나드는 공공 공간이거나 남성, 남편, 아버지, 여성의 명예가 존중되는 가족 대표인 형제가 보호하는 공공 공간입니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가부장적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성별 편견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되지 않고 항상 남성 가족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어 남성의 명예를 누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남자의 접촉과 시선, 대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 세상 여성 명예의 핵심인 겸손에 대해 많이 읽습니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 밖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성적 시도는 무엇보다도 남편이건 아버지가건 관계없이 그녀와 개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남성의 명예에 대한 위협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관련된 미덕의 예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

용기를 남자다운 미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어로 용기라는 단어가 실제로 안드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꽤 적절하게 남자다움으로 번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경의 여주인공 유디트(Judith)나 또 다른 외경인 마카베오 4서에 나오는 일곱 순교자의 어머니 등은 고대 문학에서 용감한 여성으로 칭송됩니다.

서기 100년에서 120년 사이의 그리스 작가인 플루타르코스(Plutarch)는 남성다움, 여성의 용기에 관하여라는 논문 전체를 썼으며, 역사적인 여성 인물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여성을 남성보다 더 남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겸손, 순결, 공공 장소에서의 제거 및 대중의 시선과 접촉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명예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선과 악으로서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수치심을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은 경우,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은 그

개인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개인에 대해.

내가 동료의 승인을 구하며 자랐다면 그 동료들은 나의 순응을 강요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 윤리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명예에 대한 추진력으로 인해, 그룹은 사람들이 그룹의 이익을 위해 구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이 소중히 여기고 구현하기를 원하는 관행과 가치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동안 나 자신보다 그룹의 이익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서구 문화와 1세기 지중해 문화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이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에도 이기심이 정말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영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21세기에 우리가 사리사욕을 키우고,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정도의 이기심은 서구 개인주의의 산물입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세계의 변칙적일 것입니다. 사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집단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뻔뻔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에서도 용기는 필수적인 미덕이자 용감함, 불굴의 의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신체적 해를 견디려는 의지입니다. 나 자신은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없습니다.

해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 서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징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의 모든 남성은 군대에 복무하도록 소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시 국가의 생존은 당신이 그곳으로 나가서 허벅지에 창을 찌르거나 더 나쁘게 말하면 도시 국가를 위해 창을 던지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국가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용기를 구현해야 할 큰 미덕으로, 안전과 위안,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특히 전사한 군인들이 칭찬받는 것을 듣고 그들의 불멸의 명성에 대해 추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기꺼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려는 사회화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반역적인 지방, 예를 들어 서기 66년에서 70년 사이의 유대 지역은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일을 일부 해낼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끔찍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노력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대함은 또 다른 모범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마을에서 시민 개선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가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징수된 세금의 일부가 도로 개선, 사원 건립, 세포리스 시내에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멋진 새 공중목욕탕 건립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관대한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 개선을 위해 누군가가 그 많은 돈을 기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에 대한 희망과 지중해 주변의 문화는 관대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뻔뻔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관대 한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 긍정, 명성, 많은 경우에 다른 인간보다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명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에라스도일지도 모르는 에라스도는 에텔이라는 직위를 부여받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 싶어서 자비로 고린도 극장 앞에 포장 도로를 깔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의 명성을 2,000년 넘게 돌에 새길 관대한 행동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사회적 통제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개인으로서 우리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까지 내가 실제로 말한 모든 것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한 그룹이 있고 그 눈에는 내가 명예를 원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 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며, 각 그룹은 명예로운 것에 대해 약간 또는 크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든 바닷가의 가이사랴든 그리스 도시에 사는 유대인의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대인에게 명예로운 것이 비유대인의 눈에는 종종 그 명예를 잃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로운 유대인이 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사원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 즉 성전에서 제물로 바친 동물의 고기가 오염되는 것과 모든 관련을 피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이며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 자기의 남종과 남종에게 할례를 받는 것과 너희에게 있는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유일한 하나님인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매주 일깨워 주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토라에 제시된 음식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쇠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참치를 먹고 장어를 먹지 않고 유대인을 선택하고 이방인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동료 경건하고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그 사람을 명예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도시의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내가 믿는 신 외에 모든 신을 피하는 것은 오만한 무신론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의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불경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유대인은 고대 세계의 무신론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의 존재만 확인하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이 새끼의 무엇을 잘라냈나요? 할례는 신체를 야만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각 남성의 몸에 하느님의 계약을 새기는 칭찬할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매주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게으르다는 평판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방인들이 가장 머리를 긁게 만드는 것은 식단 규정일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또 다른 흰살이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자연은 그것을 현상금의 일부로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하는 것은 신들에게나 다른 많은 훌륭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들과 함께 그것을 제공한 자연에 대한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경건한 토라를 준수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경건한 유대인의 영예를 가질 수 있지만, 바로 그 행위는 그 도시의 많은, 아마도 대다수의 비유대인 인구의 눈에는 나를 불명예로 만들 것입니다. . 공평하게 말하자면, 유대교를 나름의 장점이 있는 일종의 엄격한 규율로 보는 이방인, 특히 철학계열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 세계의 학자들이고,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체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눈에 경멸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의 대규모 도시에 사는 소수 유대인 집단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썄요, 실제로 수량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명예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훈련과 본래의 생활 방식에서 어느 정도 배도하게 된 특정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지배 문화 앞에서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정도까지.

유대 민족과 같은 소수 집단이 고대 세계에 있었다면, 소수 집단이 그 구성원, 즉 명예에 민감한 구성원을 유지하려면 집단의 명예를 귀중한 가치로 삼는 특정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명예나 불명예를 당할 가능성 때문에 경쟁하는 집단의 문화에 이끌리기보다는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행과 약속에 따라 명예를 얻는 데 구성원들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경쟁그룹. 그래서 저는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는 고대 세계에서 탁월한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유효하게 사용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십만 명의 공동체인 에베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50명의 공동체인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폴 시대에 아주 작은 규모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그룹, 기독교 그룹이 명예롭게 정의한 것에 개종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외부에서는 명예에 대한 호소를, 외부에서는 불명예의 고통을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 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밖의. 따라서 특히 소수 집단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지 신중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벤 시라(Ben Sirah)의 지혜에서 나온 예가 있습니다. 벤 시라(Ben Sirah)는 예루살렘의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교훈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마도 기원전 200년에서 175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의 자손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의 자손이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까? 인간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까? 계명을 어기는 자들. 가족 중에서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을 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눈에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 저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의 영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똑똑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존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군주와 통치자와 재판관은 존경을 받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Ben Sirah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째, 그는 무엇이 사람을 명예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밝힙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지키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명예로운 사람과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적인 고려 사항보다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권력자, 부자, 지위가 좋은 사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en Sirah는 그러한 외적인 특성 중 어느 것도 사람을 명예롭게 만드는 핵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자, 저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의 영광,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계명을 범하는 경우에도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하여 명예가 잘못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텍스트에서 우리는 2세기 유대에서도 점점 더 소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 그리스 문화,

그리스 형태, 그리스 이름을 취하여 더 큰 세계에 합류하고, 지도에 오르고, 더 큰 세계 내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자 하는 추진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곳에서도 우리는 Ben Sirah 가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지 정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학자들은 평판 재판소나 의견 재판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당신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눈에는 명예와 수치가 중요합니까? 다시 벤 시라(Ben Sirah)를 보면, 그가 이 평판의 법정을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정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을 조심하라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웃에 관하여 그들 각자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항상 그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눈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 같은 책에서 간음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인간의 눈에만 국한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 배 더 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고 숨겨진 구석까지 꿰뚫어 봅니다 . 이 두 본문에서 벤 시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삶의 매 순간을 그 앞에서 펼치는 궁극적인 의견의 재판소이십니다.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과 집의 가장 은밀한 내부 방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벤 시라는 주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회중 가운데에서 멀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사람의 명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로운 것을 추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존하거나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룩으로 알려진 또 다른 기원전 2세기 기록은 마치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의 펜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세계에서 소수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 궁극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명예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 앞에서 명예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평판 법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특징은 외부인이 자신의 의견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 그룹의 외부인, 지배적인 그리스 또는 지배적인 로마 문화의 구성원, 내 그룹의 외부인이 내 삶의 선택과 관행에 대해 반대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의견은 얼마나 귀중한가? 기원전 1세기, 아마도 서기 1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텍스트는 거짓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책인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혜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 있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가치관과 관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을 일종의 살아있는 비난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옳게 여기셨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불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을 모욕과 비난과 폭력으로 시험하고 마침내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해 씁니다. 그리고 저자는 분명 실생활에서 들었을, 심지어 실생활에서도 목격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불경건한 사람들의 추리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이 가하는 모든 수치에 대해 씁니다. 경건한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리했지만 그들은 착각했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악의는 그들을 완전히 눈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가져다주는 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얻게 될 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책의 후반부에서 대다수의 이방인 세계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만드신 것에 매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만드신 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본문에서 우리는 저자가 유대인 생활 방식에 대한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당신을 경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모든 사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들이 계속 숭배하는 거짓 신들과는 달리, 진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과 심판, 그리고 그 너머의 삶에 대한 모든 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어리 석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판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어리 석고 부끄러워서 그렇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계시가 부족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나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럽게 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지로 말미암아 큰 다툼 가운데 살면서도 이를 큰 악한 평안이라 일컫느니라. 그리고 그 구절이 나오는 더 큰 문단을 읽어보면 저자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는 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술취함, 살인, 절도, 부자연스러운 성관계. 사실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미덕과 악덕에 있어서 그토록 뻔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명예나 수치심에 대해 중요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사실상 우상 숭배의 종교였으며, 유대인은 소수였기 때문에 이방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 잠재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느꼈던 것과 같은 열정과 헌신으로 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합법적인 종교적 관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끊임없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을 단아야 합니까? 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삶의 방식?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작가들은 이러한 비유대인 땅의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 정체성의 유지를 촉진하고 촉진하기를 원하며 우상 숭배를 현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예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영리한 화가들의 헛된 노동도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눈부신 색상 조합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죽은 조각상의 생명 없는 이미지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모두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희망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대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비유대인이 존중하는 경건의 종류 역시 유대인 소수 문화의 이 저자가 다룰 내용입니다. 다수의 문화는 우리의 소수 견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탈적인 문화입니다.

이러한 소수 문화 지도자들이 그룹 구성원을 위해 하는 또 다른 일은 소수 그룹 내의 명예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외부인의 반대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외부인에게 수치를 당했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집단 앞에서 명예의 휘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에 입각하여 죽은 의인의 영혼이 약간의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와 함께 하기에 합당하다고 보시기에 풍성한 복으로 상을 받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용광로 속의 금처럼 시험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완전히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저자는 이방인 이웃, 심지어 배도한 유대인 이웃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당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명예를 빼앗긴 경험에 대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명예를 시험하시고 영원히 입증하신 경험에 대해 썼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에게 수치심을 당하는 부정적인 경험은 집단 내에서 시험받고 영원한 명예를 부여받는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소수 문화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 세트 중 하나는 운동 이미지입니다.

고대 운동선수가 견뎌야 하는 가혹함과 고난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현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히 고대 운동선수는 견뎌냈습니다. 훈련의 가혹함, 훈련의 고통, 보호 패딩과 헬멧과 장갑이 없는 세상에서 레슬링이나 복싱 시합의 고통,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그러한 사람이 명예를 위해 견뎌낸 모든 고통, 승리에 대한 희망, 그것과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자신의 그룹 외부 구성원에게 비난을 받을 때 학대를 당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과의 유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카베오 4차의 저자가 완전한 타락의 경험을 명예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운동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고대 문학에서 가장 잔인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일곱 아들에게 한 어머니가 했던 연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 그리고 그녀는 내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국가의 가치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할 명예로운 대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법을 위해 기꺼이 경쟁하십시오.

늙은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견딘 후에, 이 고문을 받고 너희 젊은이들이 담력을 잃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니라. 나는 이것이 엘아자르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처음으로 고문을 받아 죽은 이후의 일이라고 언급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예롭고 고귀한 경쟁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타락에 직면하는 것을 실제로 경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외부인의 눈에는 완전한 타락일 수도 있지만, 내부인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는 그 결과가 영광스러운 승리일 것이며 그 명예와 명성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내부자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 발췌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참여한 경쟁은 정말 신성했습니다. 덕 그 자체, 도덕적 인격 그 자체가 이날 인내를 통해 그 가치를 입증하며 상을 수여했습니다.

승리는 끝없는 삶을 통해 불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는 연로한 제사장 엘르아자르였습니다. 일곱 자녀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참가했습니다.

그들을 고문하는 폭군이 상대였고, 세계와 인류가 청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날 승리를 거두었고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의 법칙의 이름으로 경쟁하는 운동선수들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신약성서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와 그리스도인 개종자들이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수치심을 주려는 시도를 스포츠 경기로 바꾸는 데 유사하게 운동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텨서 화환을 받거나, 더 대중적인 번역에서는 하루가 끝날 때 면류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이 모든 것, 그룹 외부로부터의 수치심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룹의 관점에서 그룹 내에서 명예와 수치심을 사용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Wisdom of Solomon)의 저자이자 마카베오 4차의 저자인 벤 시라(Ben Sirah)는 모두 유대 청중들이 존중의 길로서 토라 준수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승인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며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서로의 헌신을 강화합니다.

토라를 준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헌신을 흔들리는 개인을 설득하기 위해 그룹 내의 수치심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 중 하나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조상을 찬양하는 찬송가는 벤 시라의 지혜(Wisdom of Ben Sirah)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일종의 6장 코다입니다. 아담부터 가장 최근의 대제사장 시몬 2세, 의인 시몬까지 유대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얻었는지,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얻었는지 보여줍니다. 자기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였고 또 자기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정복당함으로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내가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고대 세계 환경에서 명예의 마지막 측면 중 하나는 공적 영역에서 명예를 위한 경쟁과 보상을 위한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는 현대 지중해의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명예를 제한된 선으로 간주하는 적대적인 문화, 경쟁의 문화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돌아다닐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더 얻으려면 일부를 잃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비용을 들여서 승리해야 해요.

나는 단순히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3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불구가 되어 왔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몸이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가 그 여자에게 손을 얹자 그 여자는 즉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분개하여 군중에게 일할 날이 옛새 동안 있다고 계속 말하였다.

그 날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 안식일에는 말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주러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여자, 곧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가 이 말을 하니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을 인하여 무리가 다 기뻐하였느니라. 이제 이 상호 작용에서,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다소 전형적인 도전과 재포스팅 시나리오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형적인 명예를 위한 경쟁이지만, 한 여성이 18세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를 보시고 안식일에 병이 나았다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암묵적으로 명예를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가 전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또 다른 치유 이야기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걸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그것을 즉시 인정합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이 사람 예수를 통해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암시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면 당연히 반격이 옵니다.

회당장이 개입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그의 자리에 앉히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무리에게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으러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할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6일이 더 남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훨씬 더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방금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전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밀고, 막고, 다시 게시하고, 뒤로 밀고, 단지 동물을 돕기 위해 안식일을 어길 것이라고 말하는 펜싱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게시합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가축을 돌보라. 인간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한 필요가 아닌가? 안식일은 이 여자를 결박한 사탄의 일을 무너뜨리기에 완벽한 날이 아니냐? 이제 제가 말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교환에 대한 판결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회당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서로에게 발리슛을 날렸습니다. 결정은 구경꾼들로부터 나온다. 이번 교환에서 누가 명예를 얻고 누가 명예를 잃을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점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반대자들이 수치를 당했다고 결론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모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환에서, 말하자면 도전을 받았지만 여론의 눈에는 자신의 권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명예 게임에서 앞서 나간 것은 예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약성서의 한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세기 지중해의 명예 문화 및 명예-수치 역학과 관련하여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주제가 지중해의 목회적 상황과 전략적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정 신약성경 본문, 즉 베드로전서의 상황.

신약성경의 문화세계에 대해 강의하는 Dr. David DeSilva입니다.

세션 1, 서문: 명예와 수치입니다.